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91호 [루게 제23243호] 주체99(2010)년 10월 18일 (월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옥류관 료리전문식당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 건설된 옥류관 료리전문식당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기남동지, 최태부동지, 홍석형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김경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내각부총리인 강석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양건동지, 박도춘동지, 최봉해동지, 태종수동지, 김평해동지가 동행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현지에서 식당건설에 동원된 군부대지휘관들과 옥류관의 책임인원들이 맞이하시였다.

새로 건설된 옥류관 료리전문식당은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하여 언제나 마음쓰시는 아버지장군님께서 수도시민들을 비롯한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는 또 하나의 온정어린 사랑의 선물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50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있는 옥류관이 평양맹면뿐 아니라 료리도 잘하는것으로 소문이 나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료리전문식당을 건설할것을 직접 받기하시고 그 터전까지 잡아주시였다.

군인건설자들은 우리 인민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하루빨리 실현할 불라는 일념을 안고 애국적 헌신성을 발휘함으로써 6개월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방대한 건설공사를 성과적으로 완공하시였다.

연건축면적이 6,000여㎡에 달하고 수천명의 수용능력을 가진 료리전문식당이 훌륭히 건설된 결과 옥류관지구가 특색있는 조선식민족건축물들로 들어찬 자랑할만 한 하나의 급양봉사거기로 전변되였다.



인민들의 리용에 최대한의 편의를 보장하고 건축물의 조형화, 예술화가 실현된 최상급의 료리전문식당이 일떠섬으로써 우리 인민들은 인민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 투쟁하는 어머니당의 한없는 사랑을 더욱 가슴뜨겁게 받아안게 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적고전미와 현대미가 결합되고 우아함과 정교함이 잘 조화된 웅장화려한 료리전문식당의 외부와 내부를 오랜 시간에 걸쳐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황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식당의 건축형식과 내용은 물론 주방설비와 식사실의 비품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알아보시고 군인건설자들이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식당을 새 세기의 미감에 맞게 최상의 수준으로 건설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 건설된 료리전문식당은 내부구조도 좋고 시공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었을뿐아니라 불

사기지로서의 내용과 형식도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하시면서 인민을 위해 좋은 일을 한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먼 후날에 가셔도 손색이 없을 현대적인 료리전문식당을 만년사이에 일떠세운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시면서 이 눈부신 성과는 혁명적군인정신의 창조자들인 우리 군인들의 무한한 정진력에 대한 뚜렷한 과시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총지수려한 대동강반에 조선의 걸작으로 솟아나 오랜 세월 그 이름을 떨치고있는 인민전사의 전당인 옥류관에 최상급의 료리전문식당까지 갖추어짐으로써 인민의 옥류관이 명실공히 우리 민족의 귀중한 재부로, 세계급의 식당으로 더욱 빛을 뿌리리되는데 대해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지금 전국도처에서는 거창한 창조물들이 려이어 솟구

쳐오르고 조국의 만년재부가 끊임없이 늘어나 드디어 우리 인민이 고생끝에 락을 보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온갖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 이겨낸 영웅적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정진력이 있기에 강성대국의 휘황찬란한 실체가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옥류관은 아버지수령님의 이념위천의 리념이 구현되어있는 위대한 사랑의 결정체이라고 하시면서 수령님께서 물려주신 이 귀중한 유산을 대를 이어 빛내이는것은 우리의 신성한 의무이며 숭고한 도덕의리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의 봉사전당인 옥류관은 인민들의 식생활을 향상시키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시면서 식당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강성대국에서 살

게 될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과 음식문화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는것이 당의 의도이고 리상이라고 하시면서 옥류관 료리전문식당이 우리 나라의 료리발전에서 원종장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옥류관 료리전문식당에서는 조선민족료리는 물론 자라, 연어, 철갑상어, 메추리, 왕개구리료리를 비롯한 각종 료리들을 만들어 봉사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옥류관 료리전문식당에서 민족료리와 세계적으로 이름난 료리들을 잘 만들어 봉사하면 옥류관을 더욱 흥성거리게 할수 있을뿐 아니라 바로 여기서 명료리들이 온 나라에 퍼져나가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훌륭한 꾸러짐 료리전문식당이 온 내게 하자면 료리사들의 기술기수준을 부단히 높이고 원료와 자재를 떨구지 말고 충분히 보장해주며 식당의 위생안전성을 보장하고 설비관리에도 깊은 관

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이날 김정일동지께서는 동행한 지도간부들과 함께 옥류관 종업원들이 준비한 평양맹면을 맛보시고 평양맹면의 고유한 맛과 전통을 잘 살리겠다고 평가하시면서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봉사기관으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옥류관의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에 대한 높은 복무정신을 지니고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벌려 봉사에서도 전국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전체 군인건설자들과 평양시민들은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가게 하시며 선군시대의 옥류관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는 아버지장군님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사활을 일으키고있는 강성대국건설위업을 앞당겨 실현할 굳은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배이징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 호금도동지

나는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당신이 따뜻하고 진심어린 축전을 보내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귀중한 공동의 재부인 전통적인 조중친선이 쌍방의 노력에 의하여 보다 새롭고 높은 단계에 도달하였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당신을 총서기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중국인민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계속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모든 일이 잘되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 김정일

주체99(2010)년 10월 16일

평양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 원군사업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서 모범을 보인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원군사업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서 모범을 보인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만경대구역인민병원, 흥남비료공장병원의 료일군들은 선군혁명의 기수이며 주력군인 인민군대에 대한 원호사업을 짜고들어 군인들이 조국보위와 강성대국건설에서 위훈을 세우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인민군대를 돕는것을 공민의 당연한 본분으로 여기고있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과학기술대학 연구사 리영광, 청단고치생산사업소 노동자 서철민, 청단군 구월협동농장 농장원 박창현, 영산협동농장 농장원 윤광일은 군력강화에 이바지할 좋은 일을 찾아하였다.

철도성 역사업무 사령원 홍명철은 여러해 동안 특유영예군인의 생활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보살펴주는 소행을 발휘하였다.

조선적십자종합병원의 료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훈을 받들

고 지난 20년간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로동계급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침으로써 강철전사들이 혁명적대고조의 선봉에서 험하게 내달리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전당, 전군, 전민이 달려들어 최첨단건설에서 일대 진군전을 벌일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연구사 강철진, 조수 한성실, 문서원 김정희는 성의껏 마련한 물자들을 군인건설자들에게 안겨주고 일손도 도와주면서 그들의 로력투쟁을 고무해주었다.

신의대의운수회사 파장 리운영, 부원 리창렬, 자강도청년동맹대 대원 리승화, 우시군농촌자재공급소 노동자 리현일은 최첨단건설에 참가한 군인들을 성심성의껏 원호하였으며 라선대흥가공사업소 노동자 허영범, 라진유료공장 기술공정원 남봉일, 로동자들인 리명국, 안석산, 라선대성 무역회사 노동자 최혜란도 발전소건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다.

당의 경공업혁명방침을 높은 실적으로 받들어가고있는 라진유료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선군시대의 기비비적창조물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위훈떨치고있는 618건설동맹원들을 지원하는데서 모범을 보였다.

평안남도검찰소 부원 윤동국, 평안남도 품질감독처 감독원 리계림은 온 가족과 함께 돌격대원들을 적극 도와주었으며 신의주 화학섬유공장 노동자 김정희, 신의주야동백화점 노동자 백옥실, 청진시 수남구역종합식당 노동자 신광호, 해주시 옥계동 48인민반 박영애, 용진군 용진로동자구 38인민반 우길원도 지원사업을 잘하여 대중의 사랑을 받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문 크나큰 감격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선군시대의 군사적지지를 굳건히 다지며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바쳐갈 혁명적열정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